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8호 【루계 제26032호】 주체107(2018)년 6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어랑천4호발전소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함경북도에서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장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어랑천1호, 2호발전소를 조업한데 이어 어랑천5호발전소 조업준비를 기본적으로 끝낸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해제낄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천연원시림을 뚫고 수십km에 달하는 발전소인입도로를 건설하고 가설건물건설을 끝낸 발전소건설자들은 기본물길굴건설을 위한 작업갱뚫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슬한 산비탈을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아름드리철관로들을 보시고 함경북도내 인민들이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전소를 만년대계로 잘 건설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해제낄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자주 내려가 건설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도에서는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건설장에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어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도건설지휘부 일군들은 능숙한 사업전개력과 혁명적인 일본새, 실천적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건설지휘부에서는 물길굴과 창포언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투목표들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모든 단위들에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압축기,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공사를 힘차게 내밀수 있게 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전투장들마다에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물길굴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할 불굴의 의지를 안고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어 매일 맡겨진 작업갱뚫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4작업갱을 맡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 도탄사관리국대대가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발파효률을 높이는 한편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굴진계획을 훨씬 넘쳐 해제끼고있다.

2작업갱을 맡은 생기령광산대대, 쌍룡광산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매일 굴진계획을 최고 1, 3배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번실갱을 맡은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암질조건에 따르는 능률높은 굴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굴진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투쟁을 벌리고있다.

명천군, 길주군, 경성군대대를 비롯하여 비력치리를 맡은 대대들에서는 비력운반속도이자 굴진속도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드는것과 함께 광차 등 운반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창포언제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언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하게 일떠세울 불같은 열의안고 천연암반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며 기초굴착에서 련일 성과를 거두고있다.

각 대대의 지휘관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시, 군, 구역들에서 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예술인들이 건설장에 달려나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발전소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불굴의 정신력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성과는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5월 통나무생산계획 완수

림업부문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림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산판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5월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림업성의 일군들은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생산기간 집재장들에 쌓아놓은 통나무를 해당 장소들에 신속히 운반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 내려간 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마감나르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대중의 앙양된 생산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성간, 화평림산사업소, 회천, 삼락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자강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이들은 내부예비탐구동원으로 통전기재들에 필요한 많은 예비부속품을 마련하여 그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아래 덕천, 북창, 양덕, 신양, 덕현, 평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마감나르기에서 련속공격, 계속전진의 불바람을 드세게 일으켰다.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한 이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여 관리국적인 5월 통나무생산계획을 근 10일이나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도안림산사업소, 덕성, 홍원, 정평, 금야갱목생산사업소와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유평, 갑산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도로보수를 잘하고 대용연료에 의한 통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평안북도와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와 황해북도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마감나르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5월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각지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마감나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공기기계식부선기가 은을 낸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전기절약형, 로력절약형의 공기기계식부선기가 크게 은을 내고있다.

최근에만도 이곳 로동계급은 공기기계식부선기를 리용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시간당 전력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로력과 시약을 절약하고 부선실수률을 훨씬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제3선광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부선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제3선광장 당조직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공기기계식부선기를 만부하로 돌려 계속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면서 공기부선법을 받아들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98(2009)년 벌고 협한 검덕땅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선광장들의 과쇄제통과 마광제통, 부선제통의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년, 아연생산을 늘이면서도 전기를 절약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긴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3선광장 부선제통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건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수백만t능력의 부선제통 1단계 공사를 완공하였다.

제3선광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백만t능력의 부선제통 1단계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부선실수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있다.

일군들은 특히 수십대에 달하는 마광기와 부선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설비를 맡은 기대공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한편 선광장의 일군들은 공기기계식부선기가 새로 운영되는데 맞게 설비들을 더욱 보충완비하고 가동시간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기대공,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술학습, 기술전습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종업원들이 맡은 기대, 설비들을 능숙하게 조작운전할수 있게 하고있다.

참모부에서는 공기기계식부선기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여러가지 부속품을 비롯한 보장사업을 원만히 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정철

모내기성과 확대

황해남도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승전고를 울릴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모내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악, 배천군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냈으며 도에서는 모내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될 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모내기작전과 지휘를 매기있게 해나가고있는 도의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가 이런 성과를 안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여기에 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침입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도가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안고 들끓는 포전에 전투과지를 정한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전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시, 군들에서 물잠이, 써레치기, 모영양관리 등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또한 도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앞선 단위들을 따라배우고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를 계기로 시, 군들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열의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모내기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농장들에서 포전별특성에 따라 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트락또르,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생산을 따라세우도록 하여 협동밭마다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였다.

배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9월의 대속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뱃뱃이 들어설 각오안고 모내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갔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질보장을 기술지도의 중심으로 틀어쥐고나갔다. 신들매를 더욱 바싹 조여메고 분발해나선 이들은 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영양관리를 짜고들었다. 모든 농장들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으로 모가 자라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게 여러가지 모종류별에 따르는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혁신의 소식은 재령군에서도 전해졌다.

군일군들은 모내기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이들은 모내기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운데 맞게 논두렁짓기, 써레치기, 물잠이를 앞세우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렸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분발하여 군농기계작업소와 양수장들에 나가 트락또르의 양수기들의 가동률을 높일 방도를 찾아나갔다. 군에서는 트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물보장을 맡은 양수기운전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 양수동력설비마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울리게 하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청단군 심정농장,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모내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안고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모내기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지난 5월 많은 량의 과철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보내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그 기세로 6월에도 과철수집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철강재증산으로 들끓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과철을 모아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철강재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고 총화사업을 따라세워 광범한 대중이 과철수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도일군들은 시, 군들의 과철수집정형을 수시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제때에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도체신관리국, 도건설건재관리국, 도출판물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일군들은 주별, 월별과철수집정형을 제때에 장악하고 총화하는 한편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결과 이 군들에서는 지난 5월에도 과철수집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리원시의 일군들은 동, 인민반들에 나가 과철수집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과철수집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장풍군과 승호군에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많은 과철을 수집하여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신경섭

생산적앙양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자립성과 주체화를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있다. 이곳 책임일군들은 자동차의 기술적지표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의 튼튼한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고있다. 또한 자동차부속품생산기지의 설비들에 만가동을 보장하여 공기압축기생산을 힘차게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들어가 생산지대중과 슬기를 같이하며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의 역할을 높여 온 전투장이 들끓게 하고있다. 특히 모든 종업원들이 당에서 바라는것이라면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자동차생산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장비보장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주물장비와 프레스장비 등의 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장비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올해에도 수십종의 장비들을 생산하여 제관단위들에 보내준데 그치지 않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장비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푸는데서 한몫하고있다. 직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금형직장에서는 기판본체와 기판머리부 등 주물장비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종전과 달리 금형주조의 방법으로 장비를 만들어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제품의 질을 높인 기세드높이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생산의 앞공정을 담당한 단위들이 기세차게 내달리고있다.

회색주물직장 기술자, 로동자들은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주물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주강직장 종업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정밀가공직장, 자주호기판분공장, 생필분공장, 덕천영예군인수지공장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정밀가공직장에서는 가공프로그람을 갱신하고 기대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기판본체와 기판머리부 등에 대한 가공을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있다. 또한 련합기업소의 작전에 따라 합리적인 가공공정을 구성한데 기초하여 가공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자주호기판분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과의 창조적협동을 강화하여 변속기의 질을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생필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힘을 합쳐 송풍기날개를 비롯한 수지제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덕천영예군인수지공장의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여 제동마찰판을 비롯한 협동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으로 난관을 뚫고헤치며 올해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해 줄기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위대한 령도, 불멸의 70성상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대가정

온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사람마다 친형제로 화목하게 살고 어디서나 미덕미풍이 차넘치는 우리 나라,

물에 빠진 자기 자식보다 남의 아이를 먼저 구원하고 꽃나이청춘들이 류류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솔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 조국의 이 자랑스러운 현실은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절세위인들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화원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무상의 행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이 시대의 진로를 밝히고 비범한 령도가 키창한 혁명실천을 낳은 승리의 행로인 동시에 류례없는 인간사랑의 력사이다.

사회주의탄생가와도 같이 세상에 태여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 인민모두가 반세기이상 년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불러온 이 명곡에는 참으로 하많은 사연들과 감동적인 체험이 어려여있다.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겁다.

온 나라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던 주체47(1958)년 6월 어느날 안주땅의 한 농촌상점을 찾으시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가슴에 파고든다.

동무들은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해야 하오.

이 당부는 정법한 농촌상점 판매원들에게 하신 교시이기 전에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을 끓게 한 사명감이였고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인간사랑의 화원을 리상하신 그이의 정치신조였다.

그해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도의 한 백화점을 찾으시였다. 판매원의 두툼한 솜옷을 만져보시며 이만하면 괜찮은데 맵시있게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는 신발을 보자고 하시였다.

너무도 송구한 일인지라 판매원은 물러선 일군들의 얼굴만 그냥 바라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커듬 이르시여서야 판매원은 신발을 벗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신발을 품품히 만져보시면서 백화점 지도일군들은 판매원들의 부모가 되여야 하오, 자기 자식이 추운 곳에서 일하는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소라고 하시며 일군들의 사명감을 새겨주시였다.

판매원은 물론 일군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친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할수 있으랴.

이런 웅심깊은 어버이사랑과 정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였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이 나라 남녀로소 누구나를 다 돌보시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락이였고 기쁨이였기에 그이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전후 력사의 땅 강선에서 위대한 봉화가 타오를 때의 일이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1만t 강재증산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인민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일군들, 상점일군들, 인민반장들과 녀성로동자들을 만나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 그지없는 인정으로 하여 어느덧 자리는 한가정의 분위기처럼 따뜻하였다. 녀인들은 친정아버지앞에서처럼 자기들의 속생각을 스스럼없이 말씀드리였다.

로동자들이 퇴근할 때까지 상점문을 닫지 말고 봉사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녀성들도 기본로력으로 일을 하였으면 한다는 청원이며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상점에서 팔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간낸 딸자식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주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 모든 제의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눈내리는 12월 따뜻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담화에 대한 이야기는 강선땅에 타오른 기적창조의 불길은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으로 지핀 류례없는 사랑의 불길임을 력사에 새기였다.

어찌 강선사람들만의 체험이라 하랴.

어느 한 농촌녀성이 전선에 나간 남편소식을 몰라 남모르게 속태울 때에도 사랑하는 딸자식의 일처럼 중히 여기시고 남편소식을 알려주시였고 언제인가는 늙은이를 모시는데는 온돌방이상 없다는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층살림집에 온돌방을 놓아주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농민들과 허물없이 논두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름꾼은 로동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생활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는 수령님은 진정 천만자식을 위해 늘 마음쓰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였고 온 나라 대가정의 호주이시였다.

화목한 대가정의 초석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졌다.

사회주의의 추녀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인덕의 열과 정으로 품어안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민적성품이 초석이 된 화목한 대가정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숭고한 리념은 가는 곳마다에서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한 미덕과 미담을 낳게 하였다.

함흥의 대학생들과 의료일군들이 자기들의 살을 떼내여 화상으로 사경에 처했던 소년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였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7명이나 구원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은 처녀사양공과 부모없는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으로 키운 가두녀성…

인간개조의 열풍속에 민족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었던 새형의 인간들이 수많이 배출되여 한식솔을 이룬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따르고 어버이의 숭고한 풍모를 닮은 우리 인민의 모습이였다.

사회주의리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인간사랑이 넘쳐흐르는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관계가 꽃펴나는 과정으로 승화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인민이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기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앞날을 그려볼 때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라고 격조높이 노래한것 아니던가.

오늘날 우리 세대는 멀리 흘러간 그 시대의 메아리에서 이 땅을 진감시켰던 천리마대진군의 발구름소리보다 더욱 격렬한 감정으로 안아보는것이 있다.

자신보다 인민을 더 중시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무한대한 사랑과 정의 세계를, 위대한 어버이의 혁명생애에 관통된 인민을 위한 뜨거운 숨결을!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령도자로서 수십년동안 입지 않으시던 제낀것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신 사실에 주목을 돌린적이 있다.

군복과 닫긴것옷을 벗지 못하시고 로고도 많으신 어버이수령님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드리신 그 제낀것양복은 자신께서 대신 전투복인 잠바옷을 입으시고 수령님의 념원과 리상을 실현해나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과 의지의 결정체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오늘도 끝없는 그리움속에 찾고 부르는 위대한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뭉뭉 울려주고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가 피로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피로와하며 만약 그의 가슴에 맺힌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말벗고나서서 끝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써야 합니다.

어머니의 심정!

그것은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여있은 일념이였다.

혁명가국 《피바다》를 볼 때마다 주인공인 어머니의 노래를 무심히 듣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더욱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실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인민들이 《피바다》의 어머니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난날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늘을 생각해야 하며 자기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모두가 친형제가 되여 행복하게 사는 화목한 우리 사회의 고상한 륜리에 대하여 일러주시는 귀회에 일군들에게 형제가 벼섬을 지고 밤새껏 오고갔다는 《의좋은 형제》에 대한 옛이야기도 들려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옛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형제간의 의리와 사랑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사이의 관계도 바로 그래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자식많은 어머니처럼 늘 마음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살며 일하는 일군들의 성장은 우리 장군님의 더없는 행복이였다.

언제인가 한 녀성당일군이 자기 단위 일군의 운명을 두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당 부문에 찾아다닌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견하오, 정말 대견하오라고 몇번이나 곱씹으시였다.

그이의 사려깊은 보살피심으로 일군은 일터에 다시 서게 되였다. 이 감동적인 화폭을 대하며 그곳 로동계급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으랴.

그렇듯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높이 모신 로동당시대는 또 하나의 명곡을 낳았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그무렵은 세계적판도에서 사회주의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때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빛을 잃어가는 사회주의리념, 곳곳에서 류혈참극을 빚어내는 민족간, 종족간, 지역간 분쟁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무참히 짓밟혀 몸부림치느냐 다시 일떠서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나라와 민족들…

바로 그러한 시기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세계에 준 충격은 참으로 비상하였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가사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누구나 화목한 친형제가 되여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체험과 앞날에 대한 락관의 분출이였다.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사회주의락원을 지켜 시련도 고난도 주저없이 뚫고나가려는 충정의 맹세였다.

온 나라 인민이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목청껏 노래한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나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인민의 머리우에 드리운 먹장구름을 가셔주시려 전대미문의 험로역정을 헤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는 이런 남다른 인간철학이 있었다.

사람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여주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며 곧 나의 인간철학의 핵이다. 이런 고결한 인간철학으로 만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슬하의 천만자식들을 위해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였다.

자신께서는 한풍기의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하나를 보시면 열백을 주고싶어하는 부모의 심정그대로 인민들을 위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새살림을 편 부부의 가정을 찾으시여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제구실을 못해 주눅이 들세라 머나먼 길을 되돌아가시여 일군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신분을 진정 어버이라고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는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이다.

시련의 나날 사랑하는 인민이 당하는 아픔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눈물을 금치 못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탄생했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고 세계를 향해 웨친 정성옥영웅의 심장의 목소리, 그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이 열백번도 더 넘어질번 한 시련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큰집이 어떻게 더욱 굳건히 지켜지고 기적과도 같이 승승장구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풍파도 다 막아주며 끄떡없는 사회주의의 큰집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모진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희망과 락관에 넘쳐 21세기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강성부흥의 길을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를 더욱 가슴뜨겁게 수놓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큰집에 이 세상 천만복이 넘쳐나게 하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걸고걸으신 절사복무의 길들이 사무쳐온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상처입은 자식을 더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우리 원수님, 그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인민의 불같은 진정과 신념이 날로 뜨거워지고 굳건해지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시대, 인민의 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최전성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유산인 사회주의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헌신적복무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애국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며 사회주의대가정은 길이 번영할것이다. 이것이 공화국의 70년사를 소중히 안고 사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화고부동한 신념이고 락관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친어버이로 모신 인민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 무궁강대하라!

본사기자 한 영 민

김 영 남 동 지 가

스웨리예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스톡홀름

스웨리예왕국 국왕

까를 구스타프16세폐하

나는 스웨리예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6월 6일 평 양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천내군 금성리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에 힘을 넣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기사들에 대한 해설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부터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기사들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협참을 리용하여 농장원들에게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를 독보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발걸음을 맞추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올해농사에서 대풍을 이룩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신들의 본분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당보학습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보다 큰 혁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문 철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대진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켜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이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지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일군들이 어떤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지니는가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일군들은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오늘의 총공세에서 지시나 하고 말로 금메는 사람이 아니라 드센 배짱과 담력,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높은 실력과 완강한 전개력으로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다.

오늘날 우리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언제나 새로운것을 창조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이 아무리 높아도 일군들이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지니지 못하면 대중의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이 최대로 발휘될수 없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전변시키자면 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며 혁신을 일으켜나갈때 당의 경제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일군들이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옳바른 주견을 가지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사업에서 어떤것이 낡은 틀, 낡은 방법인가를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고 실천에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떠난 그 어떤 창조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며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 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일군이라면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리론을 기계적으로 따라외울것이 아니라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에서나 확고한 주견을 세울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내밀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좌왕우왕하게 된다. 오늘 당정책관철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당정책에 립각하여 풀어나갈 때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현실로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현실을 잘 아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일군들이 실력이 없으면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없다고, 일군들이 소유해야 할 지식의 폭에는 한계가 없으며 일군들 누구나가 폭넓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현실속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창조와 건설에서 지식이 최대의 재부라면 무식은 최대의 빈곤이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실적을 낼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일군들이 아는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대중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의견도 옳바로 판별할수 없으며 직권을 가지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게 된다. 모든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며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사업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인민대중은 만능의 선생, 가장 힘있는 천하지대부대이다.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군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고 문제해결의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 깊이 내려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중의 요구를 잘 알며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마련이다. 이것은 전형단위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들은 누구나 례외없이 자기 부문의 당정책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있으며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체현한 실력가들이다. 모든 일군들이 이들처럼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어나갈 때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터와 초소는 조국을 떠받드는 주추들이며 해당 부문,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면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빠져 사업을 창발적으로,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은 당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비상한 각오와 창조적열정도 나오고 무비의 희생성도 발휘되게 된다.

참다운 혁명가에게는 로쇠가 있을수 없다.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는것이 혁명가의 기질이다. 이것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가르쳐주신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진리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떼치고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일군, 몸이 열조각, 백조각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인민군대가 당정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집행해나가는 절사관철의 전위대오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경험이 풍부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의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여기는 투철한 자세,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해제끼려는 절사의 의지, 바로 여기에 인민군대지휘관들의 사업기풍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모든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소유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홍 진 혁

그날의 간곡한 가르치심

온 나라가 모내기전투로 들끓고있다.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서나 진심을 바쳐 농촌을 성의껏 도와주는 지원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

이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한평생 농사일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내기가 한창인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을어구에 이르시자 어느새 기별을 받았는지 농장일군들과 모내기를 도우러 나와있던 농촌지원단체 책임일군들이 마중나와있었다.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에 나온 지원자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원자들은 모내기를 잘할뿐아니라 주인집에 불도 길어주고 뜨락도 쓸어주고 작업반선전실도 꾸려주면서 각 방면으로 농민들을 도와주고있었다.

이런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기쁘다고 하시면서 청산협동농장을 잘 도와주어 올해에 대풍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위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에 청산협동농장의 농사가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모내기전투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지원자들은 단순한 로력지원자가 아니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당의 혁명전사들이라는 값높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지원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인된 립장에서 농장탁아소, 유치원과 전사자, 피살자가족들의 살림집을 알뜰히 꾸려줄데 대하여, 청산리를 사회주의료본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작업반도 잘 꾸려주고 파수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지원자들이 주인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농촌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소년단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역군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자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행사 대표들과 시안의 학생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펼쳐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뜻깊게 맞이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조선소년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력사는 아이들을 나라의 창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날소년동맹과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조선소년단을 무어주시고 소년단원들이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같 높추면 조국의 전진이 얼김을 띠진다고 하시며 학생소년들을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 지력체를 갖춘 앞날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소년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은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미래이라고 하시면서 소년단조직을 생기발랄하고 참신한 소년혁명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들을 더욱 훌륭히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의 악기들도 보내주시여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온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우는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행복한 세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지력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소년단원들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소년단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배우고 또 배우며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실천능력과 어려서부터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름답고 고상한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니며 체육활동과 예술소조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워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소년조직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소년단기를 높이 날리며 힘차게 나아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만경대혁명학원 학생 김동명, 금성제1중학교 학생 우지순, 문천시 제련초급중학교 학생 장광림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소년단원들의 학업성적의 높이이자 앞날의 우리 조국의 국력의 높이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고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지식의 탑을 쌓아감으로써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제나 소년단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행복만을 아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붉은넥타이 날리며 300만 앞으로》가 6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내 나라 빛내주신 원수님께 영광드려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3중창 《김일성원수님 품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어은금독병창 《장군님 사랑》, 남독창과 합창 《소년단넥타이 매고 게서요》, 민족기악과 노래 《만리마를 탄것 같대》, 민속무용 《줄넘기 신나요》, 합창시 《입단선서를 지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소년단원들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내세우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녀중창 《정말 고마워》, 실화무대 《원수님과 삼지연아이들》에 뜨겁게 흘러넘치였다.

민요독창 《우리 아버지 제일이야》, 녀중창 《해님과 꽃》, 무용 《해바라기소녀》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태양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만복을 누려가는 행복동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마음껏 배우고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지력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반영한 체육무용 《체육강국후비대로 우리 자라요》, 조형교예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소년혁명가,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감으로 억세게 자라날 소년단원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준 공연은 종장 합창과 무용 《김정은원수님 위하여 항상 준비》, 합창 《9월의 광장으로 우리도 앞으로》로 끝났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 대표들의

생일축하모임 진행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만경대구역 김주혁고급중학교, 락랑구역 금대고급중학교, 연안군 오현고급중학교, 화대군 화대초급중학교 소년단대표들을 비롯한 30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생일축하모임이 6일 4.25려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발언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는 소년단대표들이 받아안은 생일상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더 밝은 웃음과 행복만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소년단대표들이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해나가는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소년단대표들은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력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각지 소년단원들 뜻깊게 경축

한없이 승고한 후대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전체 소년단원들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의 소중한 명절인 6.6절을 맞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세상에 부럼없는 학생소년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은 소년단원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맞으며 각 도들에서 진행된 소년단련합단체대회들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조선소년단입단식들이 있었다.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력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조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해산광장, 개성학생소년궁전, 송도원청년야외극장 등 각지에서 명절을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합창 《소년단행진곡》, 바이올린중주 《장군님과 아이들》,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 노래와 춤 《노래불러 자랑하자 우리의 6.6절》, 체육무용 《고마운 우리 해님》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새 세대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학생소년들과 관람자들은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평양초등학원, 신의주초등학원, 해산시 혜명초급중학교,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강계시 강서소학교, 동대원구역 새살림소학교를 비롯한 각지 학원, 초급중학교, 소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즐거운 무도회와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소년태권도, 속셈경기, 공굴고달리기, 장애물극복경기, 바줄당기기 등 다채로운 경기들에서 서로 승부를 겨루는 학생소년들을 보며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각계층 근로자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날 현대적으로 꾸려진 개선청년공원, 분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뜻깊은 명절을 크나큰 환희속에 보낸 전체 소년단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비약하는 굴지의 대광물생산기지

무 산 광 산 련 합 기 업 소 에 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로 이름높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어버이수령님께서 광산에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아로새기신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70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었던 채굴장들과 설비들을 복구하고 첫걸음을 뗀 광산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굴지의 대광물생산기지로 훌륭하게 전변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생명선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70년의 자랑찬 년륜을 새겨온 련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드높은 철정광증산으로 주체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나라의 보배광산,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대광물생산기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왔다.

오늘 련합기업소는 70년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

수백만㎥에 달하는 채굴장들이 형성되고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능력이 큰 대형원추형파쇄장들이 우뚝 일떠섰으며 눈부시게 아득한 장거리벨트콘베아들이 철산봉의 곳곳으로 뻗어져나갔다. 광석채취와 운반, 버럭처리능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회전식착정기들과 대형굴착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이 채굴장마다에 전개되고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이 현대화, 과학화되였다.

다량락광, 다량운반, 다량처리에서도 전변이 일어났다.

무산에서부터 청진까지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이 해발고높은 차유령을 뚫고 장쾌하게 뻗어나갔다.

집채같은 마광기들과 사별기, 파쇄기를 비롯한 선광설비들이 줄지어 늘어선 선광장은 돌아볼수록 가슴뿌듯함을 금할수 없게 한다. 선광장증설공사가 계단식으로 전망성있게 진행되여 련합기업소의 선광능력은 해마다 높아졌다. 자력갱생기지들이 그른하게 일떠서 자재, 원료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무산의 로동계급을 위해 통근렬차, 통근버스가 달리고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지게 일떠섰으며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들과 후방공급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광부들의 생활조건이 향상되였다.

철산봉에 펼쳐진 자랑스러운 현실은 일찌기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굴지의 대광물생산기지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한 로천채굴장능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굴착기를 비롯한 채굴설비들과 선광설비들을 복구하여 생산정상화에 들어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체37(1948)년 6월 7일, 이날은 일군들과 광부들의 가슴속에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날로 소중히 새겨져있다.

이날 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인차를 타시고 채굴장에 오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광산은 우리 조국을 부강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밑천이며 보배광산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을 나라의 튼튼한 철광석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무산의 로동계급은 채굴장과 선광장복구확장공사, 광석의 다량락광, 다량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첫 현지지도를 받은 그해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다음해계획도 알당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광산을 찾으시어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떨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력갱생기지들을 꾸려놓고 선광능력을 수백만t으로 끌어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들여 꾸려주신 나라의 믿음직한 철광석생산기지가 나날이 그 면모를 일신하도록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북방의 땜판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드넓게 펼쳐진 로천채굴장과 증산의 봉을 세차게 울리는 선광장을 돌아보시면서 무산의 로동계급이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사명감을 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철정광생산을 정상화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무산의 광부들은 오늘도 심장속깊이 새기고있다. 여러차례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시고 이곳 로동계급이 경제강국건설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수십만t대발파를 련이어 진행하면서 쇠돌과 철정광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

련합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찬 발전력사에는 무산의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련합기업소실태를 료해하시고 철정광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철정광생산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가는 길에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이들의 성과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련합기업소를 전형단위로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산에 력사의 첫 자욱을 남기신 주체37(1948)년 6월 7일을 련합기업소창립일로 제정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나라의 주체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무산의 로동계급의 빛나는 위훈은 부강조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련합기업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련합기업소는 비약의 역전 나래를 활짝 펴고 청춘의 활력을 한껏 내뿜으며 자랑찬 전변을 수놓아왔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최근년간에만도 2호,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을 우리의 힘, 우리의 설비로 훌륭하게 건설하고 선광계통의 증설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장거리벨트콘베아를 설치하고 수십만t석광사를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조광, 박토처리능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철정광생산능력을 년산 수백만t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새 제품들을 개발하였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철정광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두해전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홍수와 무더기비로 광산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불사신마냥 떨쳐나 6개월이 걸려야 할 복구를 단 15일동안에 해제끼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이곳 로동계급이다.

무산의 로동계급이 성과를 거둘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당중앙프락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광산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행로는 얼마나 긍지높은것인가.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새로운 활력에 넘쳐 창조와 비약의 력사를 수놓아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위훈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호기당 출력제고에 힘을 집중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발전설비들의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갈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기본정신을 받들고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력생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혁명식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 들끓는 생산현장에 나가 기술자, 로동자들과 어깨를 겯고 발전기들의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있다.

발전기들의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금수뿜프의 날개를 개조하여 발전기대당 출력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공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타빈에 많이 쓰이는 바킹을 재생리용하여 큰 실리를 보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여러가지 지구와 장비, 설비들을 리용하여 재생한 바킹들을 타빈에 설치함으로써 증기손실을 극력 줄여 생산장성에 이바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석탄분쇄기들의 주갑추기에 조를 끼움으로써 호기당 출력을 현저히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데 맞게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4.15기술혁신돌격대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보이라물관세척 및 부식방지제를 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든 혼합용액을 리용함으로써 원가를 극력 줄이면서도 발전설비정비보강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혁신전투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방조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전력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2직장과 4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이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데 증산의 방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발전설비들에 대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더욱 깐지게 하고있다. 또한 설비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을 빠짐없이 갖추어놓고 예방보수를 깐지게 진행하여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지금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창조적인 사색과 완강한 실천력

신 평 광 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최근 신평광산에서 생산이 크게 장성하고있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알당겨 완수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에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광산에서는 모든 갱들에서 캐낸 광석을 본산갱구역에 있는 수만t능력의 선광장으로 집중시켜 정광을 생산하였다.

혁신갱의 경우 시오리나 떨어진 곳에서의 광석운반작업에 전차, 삭도는 물론 물전기재까지 동원되였다.

증산갱에서는 갱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수백m의 굴을 뚫어 운반로선을 형성하여야 됐다. 그러다보니 운반작업에서 어느 한 계통이 멎어서도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군 하였다. 그만큼 전기와 자재, 로력소비 또한 간단치 않았다.

당시의 실태를 놓고 일부 사람들은 우에서 조건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어쩔수 없는 일처럼 대하고있었다.

당책임일군의 집집한 호소는 제손으로 보다 좋은 광산의 앞날을 창조해나가려는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옳은 방법론이 따라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때문에 이곳 책임일군들은 광산의 생산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먼저 선광장들을 갱마다 분산배치하여 광석처리능력을 높일수 있는 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선광설비구입에 적지 않은 자금이 드는것이였다. 특히 생산정상화를 위해 내린 이 결심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겠는가에 사람들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지배인을 비롯한 광산일군들의 결심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고있었다. 종전의 운반공정과 앞으로 분산배치할 선광설비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따져볼 때 후자의 경우가 훨씬 경제적이였던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에서는 새 선광설비들을 분산배치하여 선광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잡한것은 정광생산과 선광장건설을 동시에 내민것이다.

일군들은 정광생산을 먼저 시작하는것과 함께 건물건설을 립체적으로 벌려 빠른 기간에 접속할수 있도록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결과 여러 갱들의 작업구역가까이에 각이한 능력의 선광설비들의 분산배치가 너덜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게 되는 실리는 대단하였다. 불필요한 운반공정이 없어지니 많은 로력과 자재, 설비와 부속품들을 절약할수 있어 좋았다. 또한 선광장들이 막장가까이에 전개됨으로써 광석처리능력이 종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증산의 돌파구가 열리였다.

자기 힘을 믿고 과학적인 타산과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일관을 내미는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알심있게 짜고들어 키다란 실리를 얻고있는 측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부선공들의 정기를 실속있게 조직하여 선광실수률을 종전에 비해 훨씬 끌어올린 사실을 놓고보자.

광산에서는 올해 2월부터 부선공들사이의 생산경기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광산에서의 생산결과는 정광의 품위와 실수률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부선공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였다.

부선공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곳 일군들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년말까지 정상적으로 내밀기로 작정하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목적지향성있게 이 사업을 내민것이다.

광산에서는 경기시작부터 참가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높이 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오랜 기능공들은 물론 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한 부선공들까지 경기에 신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하여 전반적인 생산을 끌어올리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처음에는 경기수준을 낮게 하고 점차 높이는 방법으로 하였고 주별, 월별로 정광의 품위와 실수률을 비롯한 중요항목의 수행정형을 놓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경쟁심을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온 광산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여러 선광장들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선광직장에서는 생산공정에 부선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선광실수률을 종전보다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혁신갱에 배치된 선광장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광석과 광액을 분리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였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다음번 경기총화에서는 반드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만만한 경쟁심을 안고 부선공들은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이 나날 광산에서 생산되는 정광실수률은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생산은 보다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같은 량의 화공품으로 누가 더 높은 굴진속도를 보장하는가를 겨룬 굴진공경기며 용접기술을 놓고 승부를 가른 여러가지 기능공경기들도 광산의 생산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되였다. 이것은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자체로 생산활성화를 실현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세부이다.

광산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우렁찬 동음은 이렇게 전하고있는듯싶다.

성과의 비결은 객관적인 생산조건에 앞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닌 일군들의 창조적인 사색과 완강한 실천력에 있다고.

본사기자 심학철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관철의 투사들

분천발브공장 고압발브직장에서

지난 어느날 수십대의 발브들을 싣고 공장을 떠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분천발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쉬이 발걸음을 떼놓지 못하였다. 그 어떤 파업앞에서도 오직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 모르고 결사관철의 한길로 내달려온 이들에게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헤쳐온 지난 10여일의 낮과 밤들이 뜨겁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공장앞에는 수십대의 발브생산과업이 제기되였다.

종업원들모두가 그러하였지만 발브제작의 기본공정을 맡고있는 고압발브직장 로동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있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제작해야 할 활동변과 제지변의 수량은 방대했다. 긴장한 로력조건, 공구조건, 설비조건 등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날 저녁 직장사무실에서는 초급일군들과 당원들의 격식없는 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세포위원장 강희철동무가 일어섰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수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린다면 돌파구는 반드시 열릴것입니다.》

이어 직장앞에 나선 전투임무를 최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진실적인 방도들이 나왔다.

이날 회의참가자들은 전화의 나날 최후의 돌격전을 앞두고 진행되였던 화선당세포회의장에 자신들을 세워놓고 스스로 무거운 전투임무를 맡아나섰다. 직장장과 공정원은 공정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그 장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내밀것을 결의해나섰다. 초급일군들과 오랜 기능공들은 기술적요구가 높은 발브축과 본체중심구를 비롯한 중요부분품가공을 스스로 맡아안았다.

곧 전투가 시작되였다. 공정원 리남철동무가 전투원들에게 공정별에 따르는 도면들을 나누어주었다. 직장장 오정철동무와 생산부기사장 조병호동무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협동품과 공구, 자재보장대책들을 앞질러가며 세워나갔다.

생산현장에서는 낮과 밤을 모르는 결사의 투쟁이 벌어졌다.

오랜 기능공들인 박상신, 리명환동무들이 어려운 제품가공을 맡아 일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갈 때 김성현동무를 비롯한 기대공들도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가공품 하나하나에 성실한 땀을 바쳐갔다.

그러던 어느날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무게가 수백kg이나 되는 카공품들을 기대에 설치하고 조립공정을 추진시키는데서 큰 폭을 맡아수행하던 기중기가 가동을 멈추었던것이다.

그러나 이곳 로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기중기가 없다고 하여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가공품설치와 조립전투를 중단없이 벌려나갔다. 수압시험과정에 육중한 가공품들을 다루며 애써 조립해놓았던 발브들을 세번, 네번 다시 해체해야 했지만 자신들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량심의 자욱만을 새겨갈 이들의 열의는 더욱 불타올랐다.

전화의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살아숨쉬는 전투현장에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현일 혁신의 새 소식들이 창조되였다.

수리공 김춘봉동무는 맡은 기계수리와 함께 발브조립과 수압시험을 비롯한 어려운 일감들을 스스로 맡아 두몫, 세몫씩 해제꼈다. 강철심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녀성종업원들도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자신들도 일선참호에 선 전투원이라고 하며 조립전투에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이곳 로동자들의 뜨거운 혁명열, 투쟁열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어렵게만 생각되였던 방대한 대상설비과제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당정책옹위전에서 오직 결사관철만을 아는 이들의 투쟁성과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대안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사 리 원 철 길 대 에 서

사리원철길대에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맡은 철길구간을 평점철길로 만들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 과정에 사리원북철길소대와 사리원남철길소대, 대동철길소대, 중화철길소대를 비롯한 여러 철길소대들이 평점철길소대의 영예를 빛내이였으며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최근에도 이들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침목과 깔판, 레루못을 교체하여 철길강도를 개선하였다.

혁신에는 그것을 안아온 비결이 있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철길대의 책임일군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기공구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철길관리에 필요한 기공구와 철길고착품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한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공소대로 안내하였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압착판과 레루못을 비롯한 고착품들은 나무랄데 없었다. 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나 다 만들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기공소대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이였다.

그럼만도 하였다. 각종 공작기계들과 박판압연기, 100t프레스, 풍기함마를 비롯한 설비들이 주런이 놓여있는 기공소대의 작업현장은 하나의 작은 기계공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렇듯 기공구생산설비들이 그른하게 갖추어져있으니 어찌 이곳 소대원들의 자랑과 긍지가 높지 않겠는가.

결코 모든것이 풍족하여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였다. 그 하나하나의 생산설비들마다에는 제 힘을 굳게 믿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강력으로 풀어나가는 기공소대원들의 투쟁본때가 비껴있었다.

박판압연기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이 설비의 정상가동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메탈보장이였다. 지난 시기 소대에서는 압연기메탈이 수명이 다되거나 파손되면 어쩔수 없는 일처럼 대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메탈걱정을 모르고있다.

기공소대에서는 박탈나무로 만든 메탈을 리용하여 박판압연기를 가동시키고있는데 목무이한 박탈나무메탈의 기능이 금속메탈에 짝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어느날 수천개의 압착판을 긴급히 만들어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이 박탈나무메탈이 박판압연기의 정상가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소대는 맡겨진 과제를 기한전에 완수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기공소대원들이 이룩한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며 각 철길소대들에 필요한 기공구생산을 전부 끝내였고 수많은 철길고착품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사리원철길대에 그른히 갖추어진 기공구들과 철길고착품들에는 이렇듯 기공소대원들의 자력갱생의 정신이 비껴있었다.

하기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기공소대를 가리켜 철길강도를 높이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기지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면서 기공소대의 생산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다.

올해에 기공소대에서 생산한 수많은 기공구들과 철길고착품들이 다 이곳 철길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마련한 유휴자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오늘도 사리원철길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국철

실화

뿌 리

박천군 명중로동자구의 어느 한 마을에 다달은 우리는 지나가던 길손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소학교교원이 엄고다니며 공부시킨 학생이 산다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길손은 반색을 지으며 《정말 쉽지 않은 선생이지요.》 하더니 제 먼저 앞장에 서서 장명성이라고 하는 소년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세해전까지만 하여도 박천군 명중소학교 부교장으로 일해온 올해 46살인 삼봉고급중학교 분과장 김금순동무에 대한 우리의 취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 *

명성이는 난생처음 책상앞에 앉았다. 그것도 선생님과 가까운 맨 앞자리에.

늘 집에서만 앉은걸음으로 맴돌며 자라온지라 눈앞의 모든것이 다 신기한듯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 아들애를 바라보는 명성이 어머니의 귀전에는 금순교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 나라에서야 학교갈 나이가 되면 누구나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순교원이 교과서와 학용품을 안고 찾아온 그때까지만 하여도 명성이 어머니는 아들애를 스스로 말아안은 그의 진정이 얼마나 뜨거운것인지, 개학날 아침 집에까지 찾아와 자기의 등에 명성이를 업혀달라고 재촉하던 그 진심이 얼마나 사심없는것이였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들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한생을 바쳐 교육초소를 지켜가는 참다운 애국자, 충실한 혁명가가 되여야 합니다.》

여섯해전 개학날 그 아침 명성은 창문밖으로만 내다보던 동네아이들과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보았다.

출석부를 펼쳐든 금순교원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록 세번이나 불러서야 대답을 했지만 《예!》 하는 그 씩씩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성이 어머니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명성아, 너도 학생이 되였구나.)

개학날 첫 수업을 맡게 될 자식들을 위해 부모들은 온 하루밤 잠 못 든다면 교원들은 그 45분수업을 위해 많은 품을 바친다.

그래서 사람의 한생과 성장에서 첫 개학날은 두고두고 기억된다. 금순은 그 소중한 추억을 불구자인 명성이의 가슴에 깊이 남게 해준 고마운 첫 선생님이였다.

* *

《주체101(2012)년 5월 7일

오늘 나는 명성이앞에 죄를 지었다.

교원모임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서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축축해진 명성이의 아래도리,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아이들…

얼른 명성이를 안고 밖으로 달려나온 나는 누가 불쌍타 준 비해두었던 다른 옷을 가져다 입혀주었다.

명성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난 이제부터 학교에 오지 않을래요.〉

순간의 무관심이 그 어린것에게 어떤 그늘을 던져주었는가.

나는 스스로 내 량심에 채찍을 얹었다.

명성이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명성이의 담임교원이라고 말하지 말자.》

금순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총화지었다.

후회되는것이 없는가, 거리끼는 일은 없는가, 고쳐야 할것은 무엇인가.

그는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명성이는 책가방을 메고 그는 명성이를 업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학교로 오가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 등교길에서 명성이는 미진된 학습도 보충했고 새로 배운것도 복습했다. 등교길에서의 《시간표》는 매일 달라졌다. 우리말공부시간, 노래공부시간…

그즈음 금순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일과가 생겨났다. 명성이의 굳어진 발음을 풀어주고 발표력을 키워주며 사물현상에 대한 리해를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림책을 읽고서야 잠자리에 들군 하였다. 명성이에게 즐겨 들려주는 선생님의 옛말은 매번 새로와졌다. 그 옛말을 명성이는 자기 부모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명성이의 웃음소리가 높아지자 그의 부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느덧 명성이는 2학년생이 되였다. 돌라보게 그가 성장할수록 금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던 어느해 겨울 일요일이였다.

금순은 끝내 잡았던 일감을 놓고야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명성이의 방학숙제가 마음놓이지 않았던것이다.

차비를 서두르고 문밖을 나서는데 옹알같이 날아오는 딸의 목소리.

《엄만 일요일도 없나요?》

《현주야, 엄마 딱 한시간만 있다 올게.》

늘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군 했지만 금순은 자기자신도 아이들속에 묻히면 왕왕 시간을 잊어버린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딸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바치리라 다짐하며 명성이의 집에 들어섰건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놀음에 정신이 팔려 떠칠이나 방학숙제를 미룬 명성이가 숙제를 다할 때까지 학습지도를 깐깐히 하고나서야 밤이 깊어 집에 들어서던 금순은 속이 철렁했다.

불꺼진 싸늘한 방안에 혼자 누워있는 딸애의 이마는 불덩이같았다. 서둘러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는데 딸애의 입에서 쌓였던 불만이 련속 터져나왔다.

《엄만 내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지요. 그저 명성이, 명성이. 누가 알아나 준대요?!》

맺히는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켰는지 그도 알수 없었다.

소리내여 흐느끼는 딸애의 울음소리가 갈가리 그의 가슴을 찢어내는것만 같았다. 한해가 지나면 군복을 입고 떠나야 할 딸애였다.

집안일을 도맡다싶이 하는 딸에게 생일상 한번 번번히 차려준적 있었던가.

학생들에게 바친것에 비하면 자식에게 바친것은 너무도 적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갈마들수록 그에게는 어느해 6.1국제아동절에 있었던 일이 되새겨졌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유치원은 아침부터 학부형들로 흥성거렸다. 창가앞에 서있는 현주의 눈빛은 그냥 정문을 더듬고있었다. 금시라도 어머니가 땀을 씻으며 마당가로 불쑥 들어설것만 같았다. 온 집안식솔들에게 둘러싸여 좋아라 토끼뛰을 하는 동무들을 부러움에 넘쳐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독창을 하는 내 모습은 누가 보아주나?)

현주에게 교양원이 다가왔다. 웃도 곱게 입혀주고 입술연지도 빨갛게 발라주며 금방 빗은 머리우엔 팔랑리봉이랑 달아주는데 현주가 왕-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우리 엄만 나 미워해요. 학교오빠, 언니들만 고와해요.》

그 말을 임속으로 다시 외워보느라니 늘 엄마사랑을 그리워하는 자식들에게 이제라도 못다준 정을 쏟아붓고싶었다. 남편에게 늦게나마 안해구실을 하고싶었다. 그날 밤 금순은 남편과 조용히 마주앉았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수 있을가요. 이제라도…》

금순은 말끝을 흐렸다. 이윽토록 말이 없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교원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때가 생각나오? 그때 당신은 산골마을아이들도 보란듯이 멋있게 키워보겠다고 뛰여다녔지. 난 당신의 그 정열과 진정이 마음에 들었댔소. 힘을 내오!》

함께 교원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 그때부터 오늘까지 항상 말없이 그를 리해해주고 떠밀어준 리당일군인 남편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1990년대 초엽에 오늘의 선천교원대학을 졸업한 그의 교원생활은 박천군의 어느 한 산골마을 인민학교(당시)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수학이나 국어는 물론 예능무용에도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있는 다정다감한 20살 꽃나이처녀교원은 순간에 학생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교단에 선 첫날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다 건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키워나갈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하군 하였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학급학생들의 작은 키가 마음에 걸렸다. 학부형들은 《산골마을아이들이야 다 그렇지요.》 하며 덤상하게 말했지만 그 어떤 일도 다 해낼 자신심과 열정에 충만되여있던 금순은 단념할수 없었다. 우리 산골마을아이들이라고 왜 도시아이들 못지 않게 키우지 못하겠는가.

청수중학교(당시) 학생들의 체육무용을 보아주시고 당 제4차대회 경축공연무대에 올리도록 친히 추천까지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체육무용을 하면 아이들이 몸매가 고와지고 명랑해진다고 하신 그이의 교시를 자자구구 가슴에 새겨볼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청수고등중학교(당시)에 가서 나부터 체육무용을 배워오자.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며 교장선생님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용하거던. 훌륭한 뿌리가 되겠어.》

박천군의 처녀교원을 맞이한 청수고등중학교의 체육무용교원의 놀라움은 컸다.

체육무용을 배우겠다고 앞을 다투어 찾아온 어린 학생들은 많아도 교원이 군과 군을 넘어 수백리길을 달려오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체육무용의 시초를 일어놓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학교의 임순영교원도 평범한 분학교원이 아니였는가고, 우리 학생들을 멋있게 내세울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배우겠다고 진정을 터놓는 그에게 크게 감동된 체육무용교원은 매일 진지하게 기초동작들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돌아갈 때에는 체육무용교육과 관련한 각종 도서들도 배낭가득 안겨주었다.

마침내 금순이 담임한 학급학생들이 출연하는 체육무용은 산골마을의 소박한 무대우에 올라온 마을사람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게 되였고 얼마후에는 도적인 경기에도 군을 대표하여 당당히 진출하게 되였다. 하나같이 미끈하고 늘씬하게 자라난 금순의 학급학생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롱구선수들이 되여 군의 명성을 떨치였다.

그날에는 미처 다 몰랐지만 명성이를 곱어안은 오늘 금순에게는 어제날 산골마을학교의 교장이 말했던 뿌리라는 그 뜻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명성이도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믿고 인민이 맡긴 귀중한 자식이 아닌가. 한몸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라도 당앞에 그를 책임져야 한다.

그는 마음의 구령을 더 힘껏 내렸다.

교원혁명가 금순이, 앞으로!

* *

《주체103(2014)년 6월 6일

오늘 명성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신 소년단원들중의 한성원이 되였다.

붉은넥타이를 매고 소년단경례를 하는 명성이가 얼마나 의젓하던지 눈물이 나왔다. 그때, 명성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항상 준비하자!

오늘따라 왜서인지 〈선생님, 나도 빨차고싶어요.〉 하던 명성이의 목소리가 그냥 귀가에서 떴돈다.》

《주체103(2014)년 9월 1일

당의 신임속에 명중소학교 부교장으로 임명된지도 여러달이 지나갔다. 제 제대로 해낼가. 무엇보다 걱정스러운것은 〈우리 선생님은 금순선생님입니다.〉 하며 막무가내로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명성이다. 그래서 학급을 인계한 다음부터 나는 명성이를 단독으로 맡아안았다.

2살때부터 뜻밖의 일로 걸을수 없게 된 명성이, 병을 오래동안 앓고있는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늘 나는 또다시 명성이를 업고 병원으로 간다.

텔레비존과 신문에서는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교육자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실지 이렇게 만나보기는 처음이라고 사람들마다 성심성의껏 도와준다.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말의 참뜻, 우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시시각각 절감하게 된다.》

《주체103(2014)년 10월 20일

명성이가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지도 보름이 되였다.

퇴근후에 1시간동안 그새 밀린 학습에 대한 개별교육을 주겠다는 내 결심을 듣고 그의 부모는 이젠 우리 글도 다 알고 수학문제도 척척 푸는데 명성이에 대한 학습지도는 그만두는것이 어떠냐고 되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명성이가 다리를 고치고 남들처럼 공부를 할 때 보충하지 못한 그 과정인때문에 뒤자리에 서게 될 명성이를 생각해봤는가. 명성이가 후날 오늘을 후회하지 않게 학습은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명성이가 나라에 무슨 보탬을 주겠습니까. 선생님의 부담이 또 커지게 되겠는데 그것이 미안해서 그럽니다.〉 하며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주체104(2015)년 2월 24일

오늘은 명성이의 생일이다.

며칠전부터 생일기념품으로 무엇을 준비할가 생각했었다. 지난 생일때는 명성이의 학용품과 고운 장갑을 마련했었는데…

명성이의 발을 뿌으로 재여 기억해두었던 나는 새 신발을 명성이에게 안겨주었다.

〈명성아,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 신을 신고 실컷 뛸을 차보거라.〉

명성이 부모는 그냥 눈금을 적시며 내 손을 놓지 못했다. 신발을 신고 자랬다고 삐를 쓰는 명성이를 보니 내 마음엔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것이 그들먹하게 차올랐다.

문득 아들 광성이가 군대로 떠나기 전에 읊었던 자작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운동회날이면 교실한구석에서 창문밖을 내다보며 엄마를 그렸고 등산가는 날이면 남들보다 훌쭉한 내 가방을 놓고 투정질도 많았다고, 하나 오늘은 소리높이 자랑한다고, 우리 엄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우리 어머니는 교육자라고!…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쁘고 좋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여 남의 기쁨속에 푹 잠길 때라고!》

《주체105(2016)년 3월 30일

오늘 드디여 명성이는 소학교과정안을 마치였다.

삼봉리로 조동되여 떠나간 세대주와 헤여져 산지도 벌써 1년반,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서고싶었지만 나는 살붙이와도 같은 명성이를 두고 훌쩍 가버릴수 없었다.

흘러온 4년세월, 그 하루하루를 나는 항상 명성이에게 첫걸음마를 떼여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아왔다.

지금 이 시각도 불밝힌 당중앙창가를 우러러 나는 목메여 삼가 아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명성이도 오늘 성적증을 받았습니다.》

* *

10월8일모범교수자이며 전국적인 교수교양경험발표회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박천군의 소문난 실력가교원, 군인민회의 대의원인 그를 두고 군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명성이만이 아니랍니다. 그가 하루와 같이 치료운동을 시켜 마음껏 대지를 활보하게 된 한 학생은 지금 고급중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정말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다시금 심장에 간직하게 됩니다.》

어서 자라 이 땅의 한그루 큰 나무 되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속깊이에서 사심없이, 진함없이 자기를 바치는 뿌리, 뿌리에는 오직 《깡그리!》라는 말만 있을뿐이다.

가는 곳 어디에나 그런 뿌리들이 있어 이 땅엔 푸르싱싱한 거목들이 끝없이 무성해진다.

바로 그 뿌리우에 강대한 조국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조 향 선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학생소년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고있다. —김성주소학교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 판유리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납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에 받들려 이 땅우에 솟아난 공장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해의 같은 날에 세차례나 찾아주신 곳도 있다.

사연깊은 그 공장은 바로 대안친선유리공장이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판유리와 여러가지 질좋은 유리제품들을 생산하는 보배공장이 준공된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에 공장로동계급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번모되였던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판유리직장은 공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이 직장에는 발명증서와 새 기술도입증, 창의고안증서 등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남달리 많다.

절단작업반 반장 리영철동무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당의 뜻을 받들어 공장으로 달려온 그날 그는 함께 온 제대군인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맹세의 편지를 올리였다. 평범한 제대군인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몸소 보아주신 친어버이의 그 사랑은 그만이 아닌 제대군인모두가 대오의 앞장에서 달릴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였다.

오늘 판유리생산에서 온을 내고있는 새 기술들과 창의고안들은 바로 그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면서 탐구의 나래를 펼쳐오는 과정에 마련된 창조의 열매이다.

리영철동무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로동이 곧 기쁨이고 노래로 되는 보람찬 생활속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들도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얼마나 좋으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속에서 받아안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은 실생활속에서 느꼈습니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질좋은 판유리와 유리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던 나날에 책임기사 승명수동무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하였다.

딸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꿈만 같은 소식에 접하여 온밤 잠들지 못했던 그가 영광의 대회장에서 목메여 만세를 부를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

직장장 박영섭동무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왔던 10여년전 그날의 격정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산다.

그는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현장에서 여러차례나 만나뵈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업을 주신대로 설비를 1분도 세우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여 많은 유리를 생산하던 나날에 그는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도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제표창도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남포시인민회의 대의원이다. 고마운 조국의 품을 지켜 조국보위초소에 선 그의 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은 그의 가정에서 가보로 되고있다.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해 더운 땀 아낌없이 바쳐가는 판유리직장의 로동계급, 그들은 이 나라의 어느 공장, 어느 직장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그 한사람한사람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연과 그들의 성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대로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모습이 비낀 하나의 축도였다.

본사기자

섬초소와 잊탕은 애국의 마음

통천군 하수리에서 사는 김계숙녀성과 그의 딸 송은향동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동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통천군 하수리에 가게 되면 서해의 섬초소군인들로부터 우리 통천할머니로 불리우고있는 한 녀성과 그의 딸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들을수가 있다.

그들이 바로 인민군군인들에게 여러해째 자기들의 지성이 깃든 꽃씨들과 나무모들을 보내주고있는 김계숙녀성과 그의 딸 송은향동무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김계숙녀성은 텔레비존을 통하여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고 눈시울이 젖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던 군인들, 차디찬 바다에 뛰여들어 최고령도자동지를 눈물속에 배웅해드리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문득 군사복무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감격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김계숙녀성은 잠을 이룰수 없었다.

인민군섬초소들을 수림화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다음날 그는 비록 나이가 들어 일손을 놓은 몸이지만 나무모들을 정성껏 키워 섬초소들에 보내줄 결심을 딸에게 터놓았다.

딸도 어머니의 결심을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떠칠후 그의 집터밭에는 양묘장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들은 그 양묘장에 갖가지 나무종자들과 꽃씨들, 군인들의 건강에 좋은 갖가지 약초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그들은 나무모재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밤새워 도서들을 탐독했고 유능한 양묘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면서 나무모비배관리에 온갖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계숙녀성은 먼길을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섬의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수림화에 적합한 나무종자를 구해오기 위해서였다.

관절염이 심한 다리로 어떻게 먼길을 다녀오겠는가고 걱정하는 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안한줄 왜 모르겠니. 그러나 생각해봐라. 군사복무의 나날 평범한 군인에 불과한 나를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하늘같은 사랑에 보답이 따라야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김계숙녀성은 주변산은 물론 멀리에까지 달려가 필요한 나무종자를 구해왔고 나무모들의 김도 여러번 매주면서 깨끗한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자기들이 애써 키운 나무모들을 섬초소들에 보내줄 때였다.

양묘장의 어린 나무모들이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한뿌리한뿌리 천으로 감싸 정성껏 포장하는 그들을 도와 마을사람들도 떨쳐나섰다.

이렇게 보내준 수천그루의 나무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있다는 소식이 날아들 때면 이들모녀만이 아닌 온 마을이 기뻐했다.

김계숙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보내준 나무모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자위가 어려있는 섬초소들에서 잘 자라고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힘든줄 모르겠어요. 이길에 제 남은 생을 다 바칠 결심입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와 보람

고원철도상업관리소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차령을 넘어 고원역에 들어서는 려객렬차안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흐르고있었다.

오래간만에 렬차려행에 올랐다는 한 아주머니며 솔곧 출장을 다닌다는 어느 한 중앙기관의 일군, 돌격대에 탄원하여 삼지연군으로 가는 청년을 비롯하여 마주앉은 손님들은 서로가 초면이였지만 가정적인 분위기속에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앞에서 《과밥을 봉사하여드립니다.》라고 하는 상냥스러운 목소리가 울리였다.

푸른색봉사복을 가뜬하게 차려입고 과밥을 봉사하는 처녀들의 밝은 모습이 렬차안의 즐거운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어느 한 중앙기관에서 일한다는 손님이 류달리 반색을 하였다. 그는 《고원철도상업관리소 렬차판매원들이구만. 이 동무들이 봉사하는 과밥이 제맛소.》라고 하며 과밥을 하나 사들였다.

투명한 수지밥곽에 들어있는 기름기가 찰찰 도는 흰쌀밥이며 먹음직스러운 물고기튀기, 향긋한 산나물과 꽃마늘 등은 대번에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쩌다 려행길에 오르는것으로 하여 도중식사준비에 적지 않게 품을 들였다는 아주머니도 자기 음식꾸레미를 제쳐놓으며 과밥을 청하였다.

여기저기서 렬차판매원들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방면의 렬차를 자주 만다는 한 손님은 고원철도상업관리소의 봉사지표가 참으로 다양하다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국수를, 추운 겨울철에는 뜨끈한 메기탕도 봉사한다고, 그리고 감, 사과, 복숭아, 앵두, 딸기 등 갖가지 청신한 과일들도 오른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렬차봉사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손님들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기뻤다.

우리는 고원철도상업관리소로 향하였다.

짐작한바 그대로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꽃펴나는 고원철도상업관리소는 한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겉볼안이라고 관리소의 내부도 감탄을 자아내였다. 산뜻한 연록색타일을 붙인 위생문화가 철저히 보장된 취사장이며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 청량음료생산기지, 콩우유생산기지, 갖가지 부식물이 가득한 창고들, 오이와 고추 등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는 온실들, 메기양어장…

더우기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서 빛나는 3대혁명붉은기휘장이였다. 알고보니 고원철도상업관리소는 올해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였다.

우리와 만난 최일금, 어은숙, 류경희동무를 비롯한 관리소의 종업원들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얼마전에 평양견학의 길에 올랐었다고, 인민의 락원으로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거리들을 보며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더 잘 받들어갈 맹세를 가다듬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온 나날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욱 헌신해온 나날이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몇해전 문명화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당시 상업관리소의 실태는 시원치 못하였다고 한다. 원료기지만 놓고보더라도 그랬다. 산기슭에 자리잡은 과일밭이며 축산기지 등은 뜻하지 않은 일로 하여 몇해어간에 키의나 주저앉다싶이 하였었다.

문명화동무는 원료기지에서 종업원들과 마주앉았다.

그는 1970년대말에 렬차판매원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였다. 그는 자기 직업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많은 려행자들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렬차봉사사업,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봉사할 상품지표들을 하나하나 찍어주시면서 렬차상업을 발전시킬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렬차판매원의 생활을 반영한 예술영화까지 만들도록 하여주신것이 아니랴. …

그날에 한 지배인의 이야기는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심장에 간직하고 어깨에 멍이 지도록 짐봉을 져나르며 원료기지를 새롭게 일떠세우고 상업관리소의 안팎을 일신해온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였다.

그 나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것은 자기들의 땀과 열정이 슴배인 상품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려행자들의 모습이였다.

아름다운 리상은 불같은 노력을 낳는다.

이들이 그리던 꿈은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

휴양각을 방불케 하는 원료기지의 함숙에서 부모잃은 청년들이 로동의 희열을 가슴뿌듯이 느낀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이어 우리의 눈앞에는 이동봉사차를 밀고 역구내로 향하는 렬차판매원들의 모습이 또다시 안겨들었다.

청진청년역을 떠나 평양으로 가는 려객렬차를 리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개찰을 시작하고있었던것이다.

푸른색의 산뜻한 봉사복, 저녁해살을 받아 앞가슴에서 반짝이는 3대혁명붉은기휘장을 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저 봉사복과 빛나는 3대혁명붉은기휘장에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는 봉사자들의 긍지와 보람이 한껏 실려있는것이라고.

본사기자 신 현 규

뜨거운 인간애로 만민을 매혹시키신 인류의 태양

태양은 모든 생명체들에 따스한 열과 빛을 준다. 태양이 없는 세상만물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외국의 수많은 인사들을 태양과도 같이 넓은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오늘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있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올해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영상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특집을 하였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앙골라, 나이제리아, 탄자니아, 에짚트의 신문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인상을 칭송한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반향을 상세히 전하고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잠비아와 잠바브웨의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민주콩고신문 《라 프로스페리테》는 《김일성주석의 의리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20세기 현대조선사와 세계정치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신 김일성주석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주석께서는 남달리 인정이 많고 의리심이 깊으시였다. 그 높으신 인덕으로 하여 주석에게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동지들과 벗들이 많았다. 김일성주석과 친분관계를 맺었던 외국의 벗들속에는 정치인들뿐아니라 기업가, 종교인, 언론인,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다 있었다. 지금도 주석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외국인사들은 그이의 고매한 인품과 력량, 깊은 의리심에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국가지도자, 정치가이기에 앞서 참된 인간애와 의리를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간이시였다.》

숭고한 덕망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간사랑과 동지적의리는 우주공간에 끝없이 비쳐가는 새빛마냥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사랑과 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외국의 벗들중에는 전 칠레공화국 대통령 살바도르 알엔데도 있다.

변호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알엔데는 싼띠아고종합대학 의학부에 입학한 후부터 학생운동에 나섰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그는 사회적병집을 수술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깨닫고 자주적인 삶의 길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녔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신봉하게 되였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는 결심을 가다듬게 되였다. 그가 얼마나 우리 수령님을 만나뵙기를 열망하였는가 하는것은 우리 나라 친선문화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하였을 때 자기 집에 초청하고 절절한 심정을 터놓은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주체58(1969)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알엔데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되였다. 친히 홀에까지 나오시여 반갑게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순간 알엔데는 크나큰 감격에 넘쳐 그이의 손을 잡은채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싸우는 전우를 만났다고 못내 반가와하시면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칠레에 당신과 같은 좋은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알엔데에 대한 최상의 믿음의 표시였다.

시간이 흘러 담화가 끝나자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알엔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우리 나라에 오라고, 반제공동전선에서 영원한 전우가 되자고 진정에 넘친 말씀을 해주시였다.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간 알엔데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삶과 투쟁의 기준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칠레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건설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1970년에 대통령이 된 후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은 반혁명세력의 군사정변을 반대하여 손에 총을 잡고 최후의 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알엔데대통령이 장렬하게 희생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주재 칠레림시대리대사를 만나주시고 알엔데를 추억해주시면서 해외에 피신해있는 그의 누이동생이 우리 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알엔데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를 칠레인민의 영웅만이 아닌 전세계로동계급의 영웅으로 찬양해주시였다.

전 라틴아메리카자편맹 서기장 베나로 까르데로 체까도 우리 수령님의 은정을 받아안은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베루주체사상연구대표단을 접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까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체까의 부인의 안부를 물으신 다음 체까는 생전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체까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베루에 돌아가면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체까로 말하면 평범한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찾아 고심하다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한 때부터 참된 삶의 길을 찾고 자주위업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이였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병치료까지 받았었다. 그러한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까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앞에 대표단성원들은 깊이 감동되였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사랑과 행복, 영광을 받아안았던가.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 이딸리아의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일본 《요미우리신붕》 론설위원이였던 다까기 다께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 포르뚜갈의 고메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넓은 도량,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다.

본사기자 손소연

조선의 힘은 자강력에 있다

여러 나라 언론들 보도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며 전변되여가는 주체조선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경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속에 영국신문 《엑스프레스》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였다.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고〉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놀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현실은 온갖 제재와 압박에도 끄떡없이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정신력의 반영이다, 또한 조선이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유족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로 강해지는 조선의 힘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로씨야 이르꾸쯔크주 동부씨비리출판사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에서는 자강력이라는 말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후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이였다.

민주콩고신문 《라 프로스페리테》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조선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끊임없는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 순전히 자체의 힘으로 이룩되였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바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강력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네팔신문 《라즈다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인민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낸 용감한 민족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굴의 인민이다고 찬양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는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는것, 강대국의 진정한 징표는 수령의 위대성,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라는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새긴 력사의 진리이라고 강조한 글을 편집하였다.

콩고통신은 외부의 압력이 우심해질수록 더욱 분발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자력자강의 강자들인 조선인민은 지금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고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영국신문 《프로레타리안》은 지난 수십년간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강력으로 전진해온 나라, 자력갱생을 자기 발전의 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을 력위협이나 제재로 굴복시키려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며 어리석은것이다고 평하였다.

타이의 《싱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불패의 강국인 조선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세계적수준의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커다란 기쁨과 격동속에 접한 우리는 김정은위원장께와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이것은 거대하고 경이적이며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조선은 하나다!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은위원장만세!

조선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로씨야, 오스트리아단체 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지지하여 로씨야, 오스트리아단체가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는 5월 31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폐기한 조선인민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평화애호적인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현대성을 보낸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는 5월 28일 성명에서 력사적장폐기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정, 세계평화를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노력을 보여준다, 세계인민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환영하면서 선언의 리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광심수후원회 등 각계 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민족자주통일대회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이은 통일의 새로운 강령적좌표로, 오랜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길을 밝힌 통일의 리정표로 지지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얼마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을 적극 실천하고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의 기반을 마련하며 《보안법》을 폐지할것 등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공동결의문에서 단체는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지향을 담은 력사적인 선언이라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 기운을 한껏 높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진보운동단체들의 련대조직인 민중공동행동도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의 리행을 기를 쓰고 반대해나서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에 대한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을 발표하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의 통과를 반대한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다된 밥에 재뿌리는짓》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이 낡은 대결적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민중당성원들은 얼마전 《자유한국당》건물앞에서 모임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해서는 선언을 반대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면서 선언의 리행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하는바 이것은 적폐청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전제이며 더이상 늦출수 없는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여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정계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초미의 과제로 나서는 어린이보호문제

세계도처에서 그치지 않는 무장분쟁과 극심한 빈궁, 기아 그리고 온갖 질병들의 만연은 어린이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무장충돌과 빈궁의 위협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세계어린이들의 수는 12억명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들의 처지는 날로 악화되고있다.

가난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10억명계선을 넘어섰는데 특히 아프리카의 서부와 중부지역 나라 어린이들의 처지가 가장 한심하다고 한다.

지금 1억 5 000만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증으로 성장발육에 지장을 받고있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유엔산하 기구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6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사망한 5살미만 어린이들의 수는 거의 560만명에 달하였다.

그들가운데서 46%가 출생후 4주일도 못된 갓난아이들이였다. 그 원인 역시 극심한 가난과 빈궁에 기인된다.

최근년간에 14살미만 어린이 약 12만명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한것을 비롯하여 각종 전염병에 의한 어린이사망자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어린이들이 폐염과 설사증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 병으로 목숨을 잃고있는것이다.

그러한 어린이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매일 1만 6 000명에 달한다고 볼 때 이것은 결코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한창 배울 나이의 어린이들이 고역에 시달리거나 폭력행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억 2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어린이 10명중 1명이 소년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그중 70%이상이 농업부문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또한 약 10억명에 달하는 2~17살의 어린이와 소년들이 폭력과 학대행위로 피해를 입고있다.

오늘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린이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가련해진 자들의 넋두리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제4차 북남수뇌상봉에 대해 《내용없는 만남》이니, 《기대할것이 없다.》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륙대사변에 질겁한자들의 가련한 넋두리에 불과하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채택으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자 보수패거리들은 어떻게 하나 이를 막고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보수역적당의 우두머리인 홍준표역도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북해협상 믿지 말라.》, 《위장평화쇼》라고 악담질하며 들아치다 못해 졸개들을 우리를 반대하는 삐라살포에로 내몰았다.

보수야당들이 저지마다 나서서 《북해문제해결에 관한 당의 립장》발표놀음을 벌렸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줄것을 청탁하는 문서를 미국에 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뿐만아니라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의 《국회》통과를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처럼 민족을 등진 보수패당은 판문점선언리행에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지난 5월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을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언론들이 《상상력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상봉》, 《회담정례화를 뛰여넘은 판문점변개회담》 등으로 대서특필하고 온 남녘땅이 충격과 환희로 들끓고있다.

보수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난 시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던자들이 어떻게 되였는가.

지금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대매국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보수패거리들의 발악적망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판문점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거세찬 흐름은 홍준표역도와 같은 보수패거리들을 반드시 쓸어버리고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립장 천명

볼리비아대통령 후안 마누엘 싼또스가 1일 국제로동기구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 나라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볼리비아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고 빈궁과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정의를 실현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정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

에짚트대통령 아브둘 파타호 알 씨씨가 2일 취임연설에서 정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할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건 및 교육부문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동만자판계에 비추어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밝혔다.

경제발전전망에 대해 강조

칠레대통령 세바스띠안 삐녜라 에체니께가 1일 한 연설에서 정부가 10년안에 칠레를 빈궁이 없는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를 추켜세우고 대외무역을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중국에서 위성 발사

중국이 2일 주천위성발사센터에서 2개의 위성을 쏴올렸다.

《장정-2》호(정)운반로케트에 탑재되여 발사된 《고분 6》호위성과 《라카 1》호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하였다.

《고분 6》호위성이 현재 궤도상에 있는 《고분 1》호위성과 함께 운영되면 자연부원에 대한 감시측정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자국은 전쟁이나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명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발렌찌나 마뜨비엔꼬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로씨야는 전쟁이나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에는 새로운 랭전이나 그 어떤 다른 전쟁도 전혀 필요치 않으며 또 군비경쟁이나 적대시적인 로선도 필요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로씨야는 자기의 리익과 안정, 사회정치 및 문화의 통일성과 령토완정, 가치관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정부앞에는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보장하고 생활수준과 질을 제고하며 사회 및 보건, 교육, 하부구조 등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제들이 제시되여있다고 언급하고 그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협조이라고 강조하였다.

반테로작전

인디아의 반테로군이 2일 자르칸드주에서 테로분자들의 은신처를 공격하여 4명이상에 달하는 폭발물을 압수하였다.

최근 말레이시아경찰은 전국적범위에서 여러차례의 반테로작전을 벌려 15명의 범죄자를 체포하였다.

브릭스외무상회의 진행

브릭스외무상회의가 4일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브릭스성원국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테로를 비롯한 국제적위협들과의 투쟁문제, 유엔과 국제기구들에서의 협조문제, 정보통신기술리용분야에서의 안전강화문제 등이 토의되였으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대표들은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있는 현정세하에서 브릭스국가들이 조정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며 다무주의를 공동으로 전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살륙만행 규탄

아랍국가련맹이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살륙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치료하던 팔레스티나인 간호원을 총으로 쏘아죽인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법을 란폭하게 무시한 새로운 형태의 테로범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번 살인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태복고주의정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날로 범죄화되여가는 일본사회

얼마전 일본에서 7살 난 소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각료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학교로 오가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보장문제 등이 토의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들의 도수가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에서는 혈육끼리 죽일내기를 하는 등 각종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난 5월 도꾜에서는 22살 난 녀성이 식칼을 빼들고 돈을 내라고 한 남성을 협박하던 끝에 그의 목을 찔러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보다 앞서 후꾸오까시에서는 범죄자가 녀인을 란도질하여 살해하였다.

또한 오까자끼시에서는 79살 난 로파가 남편의 머리를 꽃병으로 어리치게 내리쳐 무참히 살해하였는가 하면 히로시마시에서는 딸이 어머니를, 아버지가 그 딸을 살해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에서는 38살 난 남성이 가족, 친척 4명과 이웃에 사는 주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절도범죄도 성행하고있다.

도꾜도에 사는 로인이 사기협잡에 걸려 숱한 돈을 절취당하고 어느 한 은행에 보관되여있던 155만¥어치의 기념금화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도난당하는 등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사기협잡과 절도범죄를 끝자면 헤아릴수 없다. 지난 5월 5일 이바라기현의 한 상점에서 중학교학생이 상점주인을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쪽위에 부은 물이 발위꿈치로 흐르는 법이다.

자민당소속 국회 중의원 의원이라는자는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도중 길가던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다 못해 폭력을 가하였다.

말그대로 일본에서는 지위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너도나도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부패한 정치체제하에서는 건전한 사회에 대해 기대할수 없다.

경제성장을 떠드는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여 범죄자로 전락되고있는 현실은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전문가들은 《범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범죄행위는 이미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부패로 망해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일본이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

화산분출로 피해

파페말라에서 3일 루에고화산이 분출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재가 해발 10km이상의 높이까지 뿜어져 오르고 용암이 흘러내렸다.

이로 하여 25명이 목숨을 잃고 29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 000여명이 긴급소개되였다.

홍피해자수는 약 170만명에 달하고있다.

파페말라시로부터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루에고화산이 분출하기는 올해에 들어와 두번째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것을 호소

이란사법성 부상이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위기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폭력과 테로를 막고 평화를 수호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유엔이 예멘, 만마, 팔레스티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침략과 반인륜적인 전쟁범죄행위, 대량학살만행, 수백만명의 녀성과 어린이피난사태에 대처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유엔이 그러한 문제들에 우려만 표시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본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0890(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